

9차 최고가격 동결, 민생부담과 국제유가를 종합 고려

-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 -
- 22일(토) 00시부터 4주간 적용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8월 22일(토) 0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9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8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9차 최고가격은 8차와 같이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6월 체결되었던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서(MOU)의 60일 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도, 양국의 대치가 이어지며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되고 있다. 8월초 종전 기대감으로 배럴당 70불대까지 하락했던 국제유가는 중동전쟁이 교착 상황을 이어가며 8월 20일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90불대까지 상승하였고,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다시 상승하였다.

* 국제유가(\$/B): 브렌트 (7.5주) 88.5 → (8.1주) 81.7 → (8.2주) 88.2 → (8.20일) 93.8
두바이 (7.5주) 80.9 → (8.1주) 79.8 → (8.2주) 88.6 → (8.20일) 95.6
WTI (7.5주) 82.9 → (8.1주) 77.4 → (8.2주) 82.5 → (8.20일) 87.8

** 국제 휘발유 가격(\$/B): (7.5주) 116 → (8.1주) 105 → (8.2주) 111 → (8.20일) 114
국제 경 유 가격(\$/B): (7.5주) 159 → (8.1주) 148 → (8.2주) 160 → (8.20일) 164

정부는 이러한 국제유가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최근 서민 물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중동 협상 교착 지속에 따른 국제유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국제유가 및 국제제품가격 수준이 지난 8차 최고가격 결정 당시와 유사한 점, 최근 폭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인한 민생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한편, 국내유가는 7차 최고가격 시행(6월 27일) 이후 지속 하락하여 8월 20일 기준 리터당 휘발유 1,862원, 경유 1,845원이다.

중동정세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중동정세, 석유수급, 물가 및 민생부담,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양정화 (044-203-5220)
		담당자	서기관	이재익 (044-203-5213)
			사무관	김만식 (044-203-5215)

